

경찰 정체성 접근론에 관한 논의

Discussion about the approach to Police Identity

박한호*, 김성환**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an-Ho Park(palyo@hanmail.net)*, Sung Hwan Kim(shsk0242@nate.com)**

요약

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추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경찰 정체성 | 접근론 | 의존수단 | 경찰활동 | 경찰철학 |

Abstract

It is the fact that Korean police has not focused on establishing identity but focused on establishing system due to the war under the confused situation which accepted police system of continental law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and then accepted the police system when being governed by USA.

Afterward,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tmospheres outside became stable, police identity, the philosophy of police activity through internal introspection in order to orient police activity in modern society, is needed.

However, most of approaches for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have focused on phased measurement by emphasizing to find major variables. Such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 through certain measurement study could not only carry out replication but also showed its limit to internalize ideal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flectivity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how it depends on certain means and depending means as a recognition to internalize the identity in order to discuss the formation of necessity and approach in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and suggested its results.

■ **keyword** : | Police Identity | Approach | Depending Means | Police Activity | Police Philosophy | Police System |

* 이 논문은 한상암·박한호(2011)의 경찰청 미래발전과에서 발주한 “경찰 정체성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임을 밝힌다.

접수일자 : 2013년 07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8월 06일

수정일자 : 2013년 08월 01일

교신저자 : 김성환, e-mail : shsk0242@nate.com

I. 서론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이다[1]. 경찰은 국가의 최 일선 행정집행자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왔다.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찰은 활동적 측면에서 오늘날 중앙집권화를 기반으로 강력한 법 집행적 경찰활동, 지방분권화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민 및 국가의 상황을 절충한 혼합적 경찰활동 등 크게 3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되고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복잡다단한 치안수요의 요구와 급격한 증가는 기존 패러다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은 고전적 범죄는 물론 기본적 치안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2].

다시 말하자면, 교통통신의 발달, 국제치안환경의 변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관, 인권 신장에 따른 경찰활동의 제한 등 경찰활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에 따라 경찰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환주기가 짧아졌고, 그 변화의 폭 또한 깊고 광범위하게 일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혼합적이고 상호적이며 보완적인 새로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정체성의 혼란은 경찰조직만이 가지는 경찰활동에 대한 철학을 형성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3].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오늘날 경찰의 활동을 범죄와의 투사로서 역할에 집중하는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에 집중하는가에 혼란이 있으며, 치안수요에 따른 관련 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본연의 임무에 비등할 정도의 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범죄와 직접 대응되는 활동보다 범죄와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에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범위가 의심될 정도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 또한 경찰 정체성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

정체성의 혼란은 조직의 당위적 행동과 조직위기상황에 행위론적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함으로써,

투철한 사명의식을 필요로 하는 경찰조직구성원의 사명감, 소명의식, 직업의식의 저하를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조직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5].

경찰의 정체성은 오늘날 경찰활동을 수행하면서 범죄문제와 사회문제 중 어디에 기준을 두어 행위를 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6]. 또한, 경찰 정체성은 그 파악과 가치화만으로도 조직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행위론적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7].

그러나 정체성이란 단어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용어라는 점, 경찰조직의 역사적 관점에서 그 해석이 다르다는 점, 국가와 국가 간 경찰과 시민의 관계 형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개념이라는 한계를 가짐으로써 가시적으로 경찰조직의 정체성을 표면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이며, 비가시적인 경찰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경찰 정체성 인식을 접근론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가정에는 인간의 의식, 심정, 동기 등이 비가시적인 무형의 존재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간행동은 신념에 따른 것으로 다시 회귀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일부 측정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식조사의 방법을 통한 접근론을 논의하였다[5].

II. 경찰 정체성의 정립을 위한 접근 방법의 유형과 접근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어떤 형편이나 상태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특성”을 의미하고 있다[5][21][22-24].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만큼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논의된다. 자아정체성은 타인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고 있으며, 조직 정체성은 지향해야 할 본질적 특성으로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함에 따라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독립적 사용보다 부속적 사용됨을 알 수 있다[8].

법률적 정체성은 개인이나, 조직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특히 조직은 법률의 명시성에 의해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하위요소들로 나열된다. 예를 들면, 경찰의 정체성을 논의할 때 구조적 정체성은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나열하고, 조직적 정체성을 논의할 때는 경찰법을, 개인적 행동 정체성을 직무집행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에서 법률적 접근에 의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와 더불어 정체성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본질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논의되고 시간성에 구애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시간성을 가진 특성과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는 특성은 본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8].

Erickson(1974)에 의하면, 정체성은 자기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세계 관속에 새롭게 부딪치는 내적 충동이나 욕구, 외적 자극들 그리고 도덕적 가치들을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통합함으로써 형성된다고 하였다[9].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학자 제롬 스킨릭(Jerome H Skolnick)에 따르면 개인적 업무에 대한 메뉴얼을 형성함으로써 업무자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것 또한 정체성의 내재화 수단 중 하나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10].

이 같은 점을 가늠해 볼 때 정체성이라 함은 다른 객체와 구분되고 객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거나 시간성이 존재하더라도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자신이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불변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고,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특성을 가진 본질적 모습 즉,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의 의미로써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2. 정체성의 기능

Albert와 Whetten(1985)은 정체성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주장하였다. 첫째, 용어의 관계에 있어 다른 용어들과 구분 짓고 경쟁적인지 협동적인지 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한정성의 중요함은 다른 객

체와의 구별적 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둘째, 개념적인 논의 및 논쟁을 벗어나 실제로 측정 가능한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측정을 위한 예비적 준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특정상황 내에서 맥락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특정방향이나 범위환경에 따른 설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찰의 활동범위 및 법적 근거가 역사의 맥락을 간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따른 설정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당위적 행동에 창안한 창조적 생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생산적이거나 모던한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3].

3. 경찰 정체성 접근론의 중요성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념화와 조작화가 필수적이게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요개념들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관찰을 통하여 그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체성은 조직화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의의 다양성과 사용의 추상성 때문에 개념화 즉, 구성요소적 정의를 확정하기가 어려우며, 현재의 현상을 측정하도록 실재화하는 조작화에 따른 경험적 자료의 수집과 측정의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11].

또한, 경찰의 정체성은 각 나라마다 발전단계가 상이해 상대적인 개념이 강하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조직보다는 개인의 직업적 정체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제도적 현실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12][25][26].

이 때문에 경찰 정체성은 패러다임에 준하는 경향이 많았다. 우리나라 경찰은 역사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특히, 치안수요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환경이 더욱더 정체성을 혼란시킴에 따라 오늘날까지 하나의 패러다임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체성은 당위적 행동으로써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4. 경찰 정체성 탐색을 위한 접근론 구분

본 연구는 경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논의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경찰 정체성을 측정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경찰 정체성의 접근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접근론은 법적 접근론에 따른 경찰 정체성, 역사적 접근론에 따른 경찰 정체성, 체제적 접근에 따른 경찰 정체성을 구분하여 각 접근론적 수단의 인식차이를 살펴 미래 지향하고자 하는 경찰 정체성의 확립과 현실적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실제화 할 수 있는 접근론의 초기적 단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접근하였다.

표 1. 경찰 정체성의 접근형성 구분

경찰 정체성의 구분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	체제적 정체성 접근론
경찰이 해야 할 당위적 행동과 의무에 의해 정립된 정체성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경찰의 변천 과정에 의해 정립된 정체성	중앙집권적 또는 지방분권적 체제에 의해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체제에 의해 정립된 정체성

경찰 정체성의 접근론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관점으로써 경찰 정체성의 접근론을 규명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찰 정체성을 인간이 형성하고 내재화하는 산물로서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즉, 경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개개의 경찰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역사적 상황, 문화적 맥락, 물질적 조건의 제약을 받고, 조직적인 테두리 안에 개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믿음과 행위를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찰 가능한 실체를 설명하는 형식상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을 비평하고 변화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근 하였다[2][3].

1) 법률적 정체성 접근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집행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의 정체성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찰활동의 범위, 내용, 한계가 정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관의 형성, 철학의 내재, 이념이 형성되는 것이다[3].

한국경찰의 역할을 명시한 경찰법 3조와 경찰직무직행법 2조는 경찰이 해야 할 당위적 행동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적 정체성의 형성 기준이 되는 대표적 법률이다.

경찰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활동의 범위 내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를 정하고 있다.

이하는 경찰의 임무이다.

표 2.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의 임무[13]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한, 경찰직무집행법에서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정체성은 대부분의 경찰관의 접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역사적 접근을 통한 경찰 정체성

경찰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접근방법 중 다른 하나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경우이다. 경찰의 역할과 임무 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경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자아를 알기 위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으며, 자신을 알려면 “주관적인 판단 없이 역사적 사실을 원래 있는 그대로 기술함을 바탕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역사학자 란케(Ranke)는 주장하였다. 즉,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내재화된 배경 또한 추적할 수 있다[14].

학계에서는 경찰의 정체성을 고대 경찰, 중세경찰, 경찰국가시대, 법치국가시대, 현대로 구분하여 역사적 정체성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15]. 고대 경찰의 정체성은 국가 전반에 대한 통치적 활동으로 이행되어 행정 철학은 물론 정치 철학까지 포함되었다. 이후, 이에 관련된 국정과 철학, 행정과 같은 국가 조직적 지배의 경찰력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중세시대로 들어와 일정한 법적 한계를 가짐으로써 통치의 전반적 개념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공권력 및 그에 근거한 질서유지 활동으로 한정되었고,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국가 전반의 행정적 작용이 전문화를 거침으로써 분화되어 사회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직접 다루는 내무행정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전문화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내재화됨으로써 통치권을 근간으로 한 적극적 복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재화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법치국가가 도래함에 따라 경찰의 정체성은 법적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고 경찰활동이 전반적으로 법적지배를 받았다.

오늘날 현대경찰은 국민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권사상의 힘에 근간해 경찰권의 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과 그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공공재로서의 정체성을 내재화 하고 있다[5].

역사적 접근방법의 정체성 접근은 문화 기술적 연구에 따르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는 맥락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시될 수 있다[11]. 즉,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경찰 정체성의 접근과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3) 체제적 정체성 접근론(패러다임적 기준)

오늘날 경찰활동의 핵심적 패러다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진다[16]. 대륙법계영향을 받은 중앙집권적 경찰체제의 국가경찰과 영·미법계 경찰체제의 영향을 받은 지방분권화 경찰체제인 자치경찰제도 그리고 이 두체제를 절충한 통합형 경찰체제가 그것이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체제적 접근에 의한 정체성 확립은 철학의 형성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어 형성되는가와 관련한다. 즉, 국가질서의 유지적 철학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한 활동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헌신적 철학을 반영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기준의 편향성은 매우 상반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는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개개인의 활동지침에 있어 목적을 중시할 것인가 수단과 방법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반영하고 내재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7].

중앙집권화 된 국가경찰체제의 경찰활동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명령·강제함에 따라 그 수단이 권력적이고 시민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동적 활동 지향성을 내재화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분권화 된 자치경찰체제의 경찰활동은 지방분권적 법집행에 따라 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이 이루어져 자의적 활동 지향성을 내재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체제적 접근론은 해석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배경이나 맥락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사람들의 말과 행위는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8]. 이 점에서 개개인의 정체성은 체제적 영향에 따른 한계의 범위에 있어 행위결과 의 예측성과 관련한다는 측면에서 조직 활동성의 지향적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다.

III. 연구조사 및 설계

1. 연구 설계

이 설문과 결과는 경찰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찰 정체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경찰 정체성을 외형적으로 접근하는지 의존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 정체성 형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스스로 경찰이 시민의 요구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정체성 접근론 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산술적인 현상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법률적 정체성 접근 빈도, 역사적 정체성 접근 빈도, 체제적 정체성 빈도를 제시함으로써 모집단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접근론의 수단에 따른 의존성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활동상 정체성을 반영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반영성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 “우리가 가진 경찰 정체성이 국민의 요구나 치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중점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어느 접근론에 의존하는가?
 연구문제 2. 각 접근론을 선택한 경찰공무원 집단들은 경찰활동상 경찰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2. 배포방법 및 응답방법

본 접근론에 따른 구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서, 대구 서부서, 전남 나주서를 중심으로 경찰 정체성에 대한 접근론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설문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오프라인 설문만을 대상으로 우편과 인편으로 설문을 수거하였다. 사전설명을 통하여 회수한 976부를 모두 통계 분석하였다.

표 3.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

경찰서	설문배포	실시인원	설문회수	회수율
서울 은평서(1급)	400	395	395	98.75%
대구 서부서(1급)	400	392	392	98.00%
전남 나주서(2급)	200	189	189	94.50%
계	1,000	976	976	약 97.60%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분석결과

1) 경찰 정체성 접근 수단 선택과 의존빈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경찰관들의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을 3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항바 아래와 같은 빈도 분석결과를 얻었다.

표 4. 정체성 접근 수단의 빈도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정체성 접근인식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	343	35.1	66.6	66.6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	42	4.3	8.2	74.8
	체제적 정체성 접근론	130	13.3	25.2	100.0
	합계	515	52.8	100.0	
결측 값	무응답	461	47.2		
	합계	976	100.0		

표를 살펴보면, 총 976명의 설문자 중 기타 및 접근론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461명 이었다. 정체성 접근론을 선택한 515명중,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43명이었으며,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42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체제적 정체성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2) 접근론 선택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국민의 요구 반영도 및 치안환경 변화 적응도 인식)

다음으로 경찰 정체성 접근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경찰 정체성이 국민의 요구나 치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된 결과이다.

표 5. 정체성 접근 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인식 차이

구분	접근의존 수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수준
접근 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인식	법률적 정체성	3.13a	.918	3.098*	.046*
	역사적 정체성	3.23ab	.862		
	체제적 정체성	2.92b	.822		
	총계	3.09	.894		

주: *p<.05, **p<.01, A < B

정체성 접근 방식에 따라 치안활동 반영인식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13으로,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23으로, 체제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2.92로 나타나 역사적 정체성 접근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이 법률적, 체제적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보다 치안활동 반영성 인식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분석논의

1) 경찰 정체성 접근확립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 976명 중 461명은 경찰 정체성의 접근론적 구분에 응답하지 않았다. 즉, 경찰 정체성의 개념 및 확립이 매우 추상적이며, 답변하기 곤란한 용어의 추상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어느 접근론에 의존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경찰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분의 경찰관들은 법률적 정체성론을 경찰의 정체성 인식의 접근수단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법률적 정체성은 가시적 정체성에 매우 가깝다. 이는 성문법적 법률로써 임무와 활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추상성에 가까운 체제적 정체성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130명으로 현대사회의 치안서비스 요구를 반영하려는 경찰조직의 변화가 정체성 인식의 구분상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에는 경사이상의 경찰관이 33명인 반면 순경은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내재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 경찰 정체성 접근론 의존수단에 따른 치안활동 반영성 인식

정체성 접근 방식에 따라 치안활동 반영인식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법률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13으로 역사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3.23으로 체제적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은 2.92로 나타나 역사적 정체성 접근수단에 의존하는 경찰관이 법률적, 체제적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찰관보다 치안활동 반영성 인식 정도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적으로 정립된 정체성으로 현실 타협성이 큰 정체성을 내재화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경찰활동이 법률에 명시된 되로만 처리할 수 없으며, 이상적인 체제에 추구로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경험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 내에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경찰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시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정의에 따른 내재화는 이론적 토대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찰활동상 경찰 정체성을 반영하는 각 개인별 경찰 정체성이 행동에 투영되고 판단되며 평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마리아나 발메르데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경찰이라는 조직과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경찰이 멀리 서 있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인식성에 비하여 명확히 경찰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며, 나아가 치안이 가장 안정된 사회에서 사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경찰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19].

다양한 논의들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세계와는 다르게 현실세계에서는 경찰이 아닌 보안업이나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외들이 그러하듯 실체와 이론 간의 장벽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19].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정체란 문제의 해답은 처음 생각처럼 명쾌해지지 않는다. 불명확성은 다양한 위협을 초래한다. 조직존립의 당위성, 행동과 역할의 모호성, 이상적 미래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존재의 당위성과 행동철학을 내재하기 위해선 명확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eter Winch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통하여 인간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정체성이 인간의 신념, 소망, 목적과 분리될 수 없음에 따라 3가지 접근방법에 따른 정체성을 논의해 보았다[20].

앞서 제시한 다양한 정체성의 기능적 측면에서 법적 접근의 정체성 확립은 실행하는 자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판단을 할 때 기본적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19].

하지만 역사적 접근론이나 체제적 접근론과 같이 규칙보다 내재된 문화에서 더 사람들은 동기화 될 수 있고 또한 자기 스스로 평가 할 수 있다. 즉, 공식적 평가보다 비공식적 평가를 내재화하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한 경험과 인식으로 행동의 내재적 가치관을 형성한다. 버스를 기다릴 때 어떻게 줄을 서야 할지 승강기나 지하철같이 비좁은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몸에 익은 행동들은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한다[19].

위와 같은 기능들 때문에 조직 정체성은 가시화 되어야 하며, 조직구성원에게 정체성에 기인한 철학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접근, 역사적 접근, 체제적 접근으로 경찰 정체성 접근수단을 구분하고 수치 확인과 통계적 차이를 규명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경찰 정체성 접근의 구분에 따라 경찰활동의 반영성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인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어느 접근론에 의존하는가에 대해 법률적, 체제적, 역사적 접근론 순으로 접근의 분포를 알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각 접근론을 선택한 경찰공무원 집단들은 경찰활동상 경찰 정체성이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정체성에 의존하는 경찰관이 다른 정체성 접근론에 의존하는 경

찰관보다 높은 반영성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1] 박한호, *여성경찰공무원 직무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pp.1-3, 2013.
- [2] D. W. Perez, *Paradoxes of Police Work*, DELMAR CENGAGE Learning, pp.159-175, 2001.
- [3] 한상암, 박한호, *경찰 정체성확립방안*, 경찰청 미래발전과, 경찰청, pp.76-77, 2011.
- [4] C. R. Swanson, L. Territo, and R. Taylor, *Police Administration : Structures. Processes. and Behavior*, Prentice-Hall, p.390, 2007.
- [5] 오석홍, *인사행정론 제5판*, 서울: 박영사, 2005, pp.21-102
- [6] 한상암, 김명대,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1호, p.182, 2012.
- [7] S. S. Souryal, *Polic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pp.11-12, 1981.
- [8] E. H. Erickson, *Identity: Youthandcrisis*, Norton, p.211, 1968.
- [9] 송은미, *공군기술부사관 집단정체성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p.9, 2011.
- [10] H. J. Skolnick, *Justice Without Trial.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Violence*, Ballantine Books, 1969.
- [11]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제4판*, 서울: 법문사, p.15, 2010.
- [12] 이황우,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1997, pp.3-37.
- [13] <http://www.moleg.go.kr/>
- [14] 조지형,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랑케 & 카*, 서울: 김영사, pp.34-50, 2007.

[15] J.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McGraw-Hill Book Co., pp.1-2, 1997.

[16]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pp.51-57, 2007.

[17] 박한호, 한상암, “경찰공무원 치안서비스제공의 일관된 행태 저해 요인에 관한 논의”, *공안행정학 회보*, 통권47(21권2호), pp.341-365 2012.

[18] D. K. Henderson, *Interpretation and Explanation in the Human Scienc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14-34, 1993.

[19] 마리어나 발메르데, *법치란 무엇인가*, 행성:B온다, pp.48-50, 2011.

[20] P. Winch, *The Idea of Social Science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Routledge & Kegan Paul, p.121, 1958.

[21]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29194&q=%EC%A0%95%EC%B2%B4%EC%84%B1>

[22] 이황우, *경찰학개론 제4판*, 서울: 법문사, 2005, p.478;

[23] 배정훈, *동기부여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6, p.16;

[24] Kast. F. E.. and Rosenzweig. J. 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 Systems and Contingency Approach 4th ed.* New York: McGraw-Hill: 1985, p.286

[25] 김태근, “경찰문화가 여성경찰관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p.1-7, 2009.;

[26] 류채형, “한국 여성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직무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p.1-42, 2010.

저 자 소 개

박 한 호(Han-Ho Park)

정회원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경찰행정진공)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과(경찰학석사)
- 2013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과(경찰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극동대학교, 경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시간강사, 한국경찰학회 사무총국 총무간사

<관심분야> : 경찰학, 경찰인사관리, 경찰조직관리, 범죄학, 형사정책, 민간경비, 교정학 등

김 성 환(Sung Hwa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경찰행정진공)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과(경찰학석사)
- 2013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학과(경찰학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영산대학교, 경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시간강사, 한국민간경비학회 사무총국 편집간사

<관심분야> : 경찰학, 경찰인사관리, 경찰조직관리, 범죄학, 형사정책, 민간경비, 교정학 등